

# 광주시 고위공직자 3명 구속영장...민간공원 차질 우려 '심각'

###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 이용섭 광주시장 "동요 안돼...민간공원 성공해야"

광주 민간공원 특례2단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고위공직자 3명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심각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이모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에 이은 두 번째 영장 청구다. 이 전 국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전 국장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이 공모해 유사사업 실적을 제안심사위원회에 보

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광주도시공사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 전 국장이 구속된 만큼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게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청구되면서 사업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협상대상자 지위를 가진 반납해 2위 업체인 한양건설이 선정됐고,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바뀌었다.

일정대로라면 1단계 사업은 이미 사업자와 협약체결을 끝내고 2단계 사업도 10월 중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 여파로 1·2단계 사업자 중 단 한 곳과도 협약체결을 하지 못했다.

사업자 대부분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협약 체결에 앞서 수사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으로 나서게 가장 큰 이유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협약 체결을 10월 말 목표로 했지만 1·2

단계 모든 사업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르다 보니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6월 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사업 좌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4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시정 공무원들은 위축됐고 행정 절차는 복잡한 데다 우선협상대상자들도 미적거리면서 불안감이 크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며 "검찰 수사에 동요하지 말고 현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오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혹스러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검찰수사로 위축돼 업무를 관행적, 소극적으로 처리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 절실한 변화와 혁신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최대 규모의 중앙공원 등이 도시공원에서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반드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이슈 판결

### 法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무수칙 준수하면 퇴직금 지급 마땅"

"종속관계서 5년간 일한 2480여만원 지급"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가 요구한 퇴직금을 주지 않은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2016년 8월 미용실 업주 B씨로부터 고용돼 임금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다 일을 그만 둘 시기, 퇴직금 248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 B씨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

당' 한다며, B씨는 '위촉계약에 따라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일 뿐,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A씨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B씨로부터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근무하는 등 근무수칙을 준수했고 특히 B씨에 의해 출퇴근 여부, 근무시간과 형태, 업무태도 등 관리·감독을 받았다"며 "B씨는 또 A씨를 포함, 다른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손님배정까지 하는 등 근로자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미용실 관련 브랜드의 대외적 이미지, 미용 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을 위해 A씨 등에게 계속 교육을 해온 것으로 미뤄, A씨는 직원으로 인정돼 퇴직금을 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당장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공원 10개 지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1단계 4개 공원과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로 나뉜다.

1단계는 지난해 1월 마북공원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 고운건설, 수량공원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단계는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탈락업체의 이의제기 등으로 특정감사에 착수, 재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사업자가 바뀌었다.

애초 우선협상대상자는 중앙공원 1지구 광주도시공사, 중앙공원 2지구 금호산업, 중외공원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 라인산업, 운암산공원 우미건설, 신봉공원 산이건설 등이었다.

하지만 재심사 과정에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



"수험생 긴급수송 지원 준비합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능 당일 수험생 긴급 지원 작전에 투입될 교통관리계 경찰들이 지원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수능 시험장' 광주 고교 과학실서 수능 누출

시교육청 "시험 지장 없어"

광주의 한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중금속 물질인 수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40분에서 5시 사이에 광주의 모 고교 과학실에서 수은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수은은 5g 정도 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은누출은 수은기압계를 옮기던 중 기압계가 훼손돼 발생한 것을 이 학교의 과학교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과학실을 새롭게 증·개축한 뒤 순차적으로 약품 등을 옮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초동조치 매뉴얼에 따라 흡착제를 이용해 수은을 빨아들이고 고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

황가루를 뿌려 황화수은 상태로 처리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학교측과 함께 수은기압계를 밀봉하고, 과학실을 폐쇄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전날 광주시교육청이 과학실과 수은기압계를 이동시킨 복도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이상 없음' 조치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잔류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30나노그램에 미달한 80나노그램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며 "복도 등에서도 측정한 결과 문제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가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지만 문제가 발생한 곳은 과학실인데다가 복도까지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수능을 치르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인호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네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명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